

광주시 '예술여행도시' 만들기 본격화

관광활성화 협업회의 열고 5대 전략 10대 과제 제시

예술 관광현장 역량 강화, 권역별 콘텐츠·인프라 확대

광주시가 차별화된 예술관광 브랜드 상품 발굴에 나서는 등 '예술관광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21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관광도시 광주' 추진협업회의를 열고 예술관광 브랜드화 사업 5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의 명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예술분야 성숙에 발 맞춰 예술여행을 여행광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관광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를 개발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관광브랜드에 적합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관광콘텐츠 공급 경로 확대, 도시개발과 연계한 도시공간 전반 예술코드 적용, 주민친화형 작형 상품 운영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술관광 브랜드화 사업 5대 전략으로 △예술 관광 현장 역량 강화 △4대 권역 제안(비엔날레권-일상예술, 아시아문화전당권-동시대예술, 양림사직권-근대예술, 무등산권-전통예술)과 권역별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4대 권역간 연계를 통한 관광객 방문 규모와 체류시간 증대 △도시공간 전반을 예술 코드와 접목 △예술관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예술 관광 전문 인력 육성 및 장

업, 일자리 확대 △예술 창작자 및 문화공간 관광수요에세 강화 △기존 자원 및 콘텐츠, 문화공간의 경쟁력 강화 △신규 시설 및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확대 등 10대 과제도 마련했다.

더불어 회의에서는 광주예술가와 지역 청년 여행기획자를 연결해 관광객들이 당일 또는 하루 정도 함께하는 '광주 예술인과의 여행', 지역 내 예술여행 거점에서

외국인들이 1박2일 이상 묵을 수 있는 '아트스테이' 프로그램, 2018년 여행주간에 운영했던 우수 프로그램 중 선별해 만든 '광주예술유랑' 등과 같은 다채로운 예술 여행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청년 기획자의 예술여행상품은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전 세계 209개국 1만5천여 명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판매·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광협회 등 지역관광업계와 연계를 통해 국제행사가 관광분야와 결합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 발굴로 광주가 보유한 매력적인 예술코드를 문화예술의 전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향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최근 특수목적관광과 같은 대안관광이 주목받고 있어 새로운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광주가 지닌 예술분야 자력을 지역의 대표 관광브랜드화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규모 행사와 접목해 광주 관광이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문화재단 성과창출계획 보고 받아 계획을 공유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1일 오전 광주문화재단을 방문해 김윤기 대표로부터 성과창출계획을 보고 받고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 /광주시 제공

광산구,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준비 박차

보고회서 수영대회 지원계획 수립...9개 중점 점검 분야 66개 사업 확정

광주 광산구가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들어갔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합지원반을 운영하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 9개 중점 점검 분야 66개 지원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글로벌 마케팅'으로 대회 분위기 조성

힘쎌은 광산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 주재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합지원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첨단2동 남부대수영장, 우산동 선수촌 등 대회 주 무대인 광산구가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인 세계 수영인의 축제를 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

먼저, 광산구는 이 자리에서 이정삼 부

구청장을 지원본부장으로 하고, 1본부 7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지원반'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주경기장·선수촌 주변 도시환경 정비, 숙박시설 지정확대 및 식품접객업 소위생관리 강화, 문화예술·공연행사 및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등 9개 중점 점검 분야 66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고훈석 기자 ghs@

광산구는 현재 예산 22억여원을 확보해 쾌적한 대회를 위해 도로·녹지·간판 등 도시환경 정비에 들어갔다.

나아가 중앙정부에 예산 5억원을 신청, 선수촌과 수영장 인근에 학생·작가·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거리 조성 등도 계획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전 세계 10억명 이상이 TV로 지켜보는 수영대회는 광산구에 큰 기회"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친절하고 정감 넘치는 맛,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이벤트로 대회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인이 다시 광산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고훈석 기자 ghs@

북구, 광주 자치구 최초 생활안전보험 가입

재해·재난·대중교통 등 사고 발생 시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광주 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북구는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지난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2월 보험을 가입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고 전출, 전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천만 원 한도이며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 사고 등 피해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전남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159억 투입

나주시 사업 설명회, 서비스 향상 방안·복지부 지침 등 안내

전남도는 21일 나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시군 담당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19년 전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설명회'를 열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및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을 안내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시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의 복지부 지침 변경 사항과 사업별 기준 정보 등이다. 특히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제 본격 시행과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지역 거주자 제공인력 자격양성 과

정' 신설 등을 설명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시군과 제공기관에 협력을 당부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올해 32개 사업에 159억 원을 들여 2만 1천 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1천17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2019년 전남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은 시군별로 2월에 모집해 3월부터 1년간 서비스를 한다. /윤규진 기자 jin2001@

하남산단에 완충 저류시설 설치...오·폐수 차단

광주 하남산단에 오·폐수 유입을 막기 위한 완충 저류시설이 설치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근린공원(광산구 손재로) 지하에 419억원을 들여 3만 규모의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완충 저류시설은 산단 내 화재·폭발·누출 등 각종 사고로 발생한 오·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정승현 기자 jsh9668@

현재 부지 선정과 설계 작업 중이며 2021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이 설치되면 하남산단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장성 남면에서 시작해 하남산단~수원·운남지구~극락강까지 14km에 걸쳐 광주 도심을 관통해 흐르는 풍영정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